# 中國駐光州總領館期刊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소식지

2010年

제 1 호

JOURNAL OF THE CONSULATE-GENER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GWANGJU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편역 · 발행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창간호

# 독자님께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소식지〉 창간을 맞이하여

친애하는 한국 친구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이 소식지를 열람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국민들이 상호 친밀하며 문화적으로 상통하여 유구한 우호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양국 정부와 사회 각계의 공동 노력으로 전면적이고 신속하며 건강하게 발전해 왔으며, 이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은 작년 6월에 개관했으며, 중국이 한국에 설립한 3번째 외교 대표기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중·한 양국, 그리고 중국과 한국 호남지역, 제주지역 간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상승하였음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역 내 한국 친구분들이 중국을 더 자세히 알고, 저희 총영사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는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 총영사관 소식지〉를 발간하여 중국 주요뉴스, 중·한 교류 및 협력 현황, 중국 경제무역 정보, 중국 각지의 자연 인문 경관 및 특색 문화, 그리고 총영사관 행사와 공지사항 등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본 소식지를 통하여 한국 친구 여러분께서 중국을 더 인식하고 이해하며 느끼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아울러 이 소식지와 총영사관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 周汉生

2010년 4월

# 중국주요뉴스

중국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3월 5일부터 14일까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 사업보고에서 2009년은 신세기에 접어들어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한 해라 지적하면서, 국제금융위기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아 경제성장 속도가 가파른 하락선을 긋게 되었다. 이처럼 위기 상황 하에서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난해 GDP는 33조 5천억 위안에 달해 전년대비 8.7% 성장하였으며, 도시 신규취업자수는 1,102만 명, 중앙정부 공공투자 9243억 위안, 수출입 총액 2.2억 달러, 사회보장자금 2,906억 위안이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2010년 중국 경제사회발전 주요목표로 GDP성장 8%, 도시 신규취업자수 900만명 이상, 등록실업률을 4.6% 이내, 주민소비가격 상승폭 3% 내외 및 국제수지상황을 개선하는 등이라고 제의하였다.

3월 28일, 중국 "지리(GEELY)"자동차와 미국 포드(FORD) 자동차는 정식으로 볼보(VOLVO) 자동차 인수를 체결하여 볼보자동차 지분 100% 등 관련 자산을 18억 달러에 매입하여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자동차 인수안이다.

4월 9일, 중국과학원 원사, "창어(嫦娥)프로젝트" 총지휘자 겸 총설계사 엽배신(葉培新)은 중국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달 탐사 로봇을 탑재한 "창어 3호"위성은 오는 2013년 발사하여 달 연착륙 임무와 달표면에서 무인탐사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내년 화성탐사위성 "반디불 1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4월 10일, 2010 보아오 아시아 포럼이 중국 해남도에서 개최하였다. 중국 시진핑 국가부 주석은 개막식에 참석하여 〈아시아 녹색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협력추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중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재 세계적인 시대 흐름이고 아시아 각국은 인식을 같이하고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여 녹색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 아시아의 행복과 세계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강조하였다.

4월 12일, 미국에서 개최한 제1회 세계핵안전보장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미관계 및 공통 관심사인 중대 국제 사회문제와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양자회담을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중요한 의견일치를 달성하였다. 후 주석은 양호한 중·미관계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더불어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이바지한다고 하였다. 양국 경제무역관계에 대해서 후 주석은 위안화 절상은 중미무역의 불균형 문제와 미국의 취업난을 해결할 수 없으며, 중국은 대미무역 흑자를 도모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형성 체제개혁의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세계 경제 정세의 발전과 중국 경제 운영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외부 압력에 의한 추진은 없을 것이라 하였다.

금년 봄에 접어들어, 중국 운남(雲南), 광서(廣西), 귀주(貴州), 사천(四川), 중경(重慶) 5개 성, 직할시에 극심한 가뭄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피해지역은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그 중 운남성과 귀주성은 백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이번 가뭄으로 6,130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중 2,425만 명이 식수난에 시달리고, 1억 무(1무는 약 200평)의 농경지가 가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240억 위안 인민폐의 직접적 경제 손실이 발생하였다.

# 황사현상 및 중국의 정비대책

올해 3월 20일에 대규모 황사가 중국 대륙을 휩쓸었고 바다를 건너 주변에 있는 한국, 일본은 물론 홍콩, 대만 지역까지 도달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일부 한국 친구들은 황사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게 되었다.

사실상 황사는 지구상 수십만년 전부터 존재해 온 자연현상이고 그 근원은 대기환류(Atmospheric circulation)로 인한 강풍과 가뭄이다. 인류의 과도적 벌목과 방목으로 초래한 생태파괴가 이 현상을 더욱 격화시키고, 특히 근년이래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한 날씨가 황사의 파괴성을 훨씬 증대시켰다.

중국의 사막화 토지면적은 약 174만㎢, 국토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약 4억 인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 정비 가능한 부분은 53만㎢이고 나머지는 연평균 강수량이 몇 십 mm 뿐임으로 식물이 생존할 수 없어 정비 불가한다. 황사가 모래를 휘두르는 높이가 3,000m로 나무로는 아예 막아 낼 수 없다. 게다가 황사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온다고 하지만 실은 절반 정도의 바람과 모래가 몽골, 카자흐스탄 등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하면 "중국 황사"를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으며, 단지 우리는 황사의 위해를 줄이기만 할 수 있다.

"삼북 방호림"공사 약도

울창한 "삼북 방호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체약국으로서 중국 정부는 사막화 방지와 정비를 매우 중요시하고 〈사막화 방지와 정비법〉, 〈초원법〉, 〈수토보지법〉 등 많은 법규를 제정하고 1979년부터 거액 투자로 중국 서북, 화북, 동북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총면적 406.9만㎢의 대형 방호림(防護林) 공사를 실시해 왔으며, "전국 사막화 방지와 정비 공사", "북경 · 천진 황사정비 공사", "경작지 철폐 및 산림복원 공사", "초원 사막화 정비 공사" 등 생태 공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몽골, 한국, 일본 등 국가와 같이 황사 연구, 정비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황사 방지와 정비 사업은 초보적으로 성과가 보이고 있고 2009년까지 사막화토지 정비면적이 누계 2,400여만 ha에 달했다. 과거에 연평균 3,400여 ㎢로 확대되었던 사막화 토지는 이제 1,200㎢로 줄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황사 방지와 정비 공사에 대한 투입을 부단히 확대시킬 것이고, 한국을 비롯한 나라의 공동 참여를 환영한다.

# 중국 경제무역 정보

## 중국 국무원에서 9개 산업분야의 구조조정 목표

4월6일, 중국 국무원에서 전력, 석탄,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코크스, 제지, 피혁 및 염색 등 9개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에 따르면 전략산업에 2010년 전에 5,000kw에 해당한 소규모 화력발전소, 석탄산업에 8,000여 곳 총 2억 톤에 해당한 소규모 탄광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 중국 3월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시상 최고

4월9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 년 1/4분기에 중국내 자동차 생산 및 내수 판매는 각각 누계 455.45만대와 461.06만대에 이르러 전년 동기대비 각각 76.99%와 71.8% 성장했다.

## 중국 상무부 3월 무역역조의 구성 및 원인 분석

중국세관총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3월에 6년만 처음으로 72.4억 불의 역조가 발생했다. 대외 무역 주관부서인 중국상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내 경제회복 태세가 점점 확고해지고 국내소비가 점차 확대됨에 따른 빠른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세관총서에서는 3월에 역조의 원인이 기업의 원가상승, 해외시장 악화 및 구정때 대부분 공장의 휴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 2010년 중국경제, 낮은 물가상승속 고성장 실현 가능

중국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에서 4월 10일 상해에서 열린 포럼에서 2010년 중국 경 제가 낮은 물가 상승 속의 고성장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원에 의하면 2010년에 중국 GDP 성장률이 2009년보다 1~2% 높아지고 CPI는 3% 내외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 2010 북경 모터쇼 테마: 녹색미래에 관한 자유로운 상상

2010년 4월 25일~5월 2일에 중국 북경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2010 북경모터쇼"가 열릴 예정이다. 95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차량이 선보일 예정이다. "녹색미래에 관한 자유로운 상상"은 이번 모터쇼의 테마가 될 것이다.

## 2010 중국경제 1분기 11.9% 성장

4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민폐 절상과 디플레이션의 압력하에 지난 1분기에 중국 GDP총액이 80,577억 위안에 달하여 11.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월 23일, 박광태 광주시장은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을 위한 우호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광태 시장은 총영사관이 설립된 이래 광주시와 중국 간의 관계발전에 쏟은 모든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고, 작년 11월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광주(廣州)를 방문했던 기억을 유쾌하게 회고하였다. 염봉란 총영사는 박광태 시장의 총영사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에 감사하며, 총영사관은 광주시와 중국간 모든 분야, 모든 차원에서의 교류 및 협력을 계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염봉란 총영사는 중국을 대표하여 박광태 시장에게 "2010년 정주(鄭州)세계관광도시 시장 포럼" 초청장을 전달하였다.

3월 5일, 한·중문화협회와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이 중국 유학생을 위한 "영신춘(迎新春)-중국 유학생의 밤" 행사를 공동 개최하였다. 염봉란 총영사, 한·중문회협회 이영일 총재, 송동석 광주지회장과 전남, 조선, 호남, 광주, 목포 등 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3월 19일과 22일, 염봉란 총영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송하진 시장과 전라남도 여수시 오현섭 시장을 각각 방문하여 중국과 두 도시간의 관계 발전, 경제무역 협력과 인문 교류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염봉란 총영사는 두 시장에게 상해 엑스포 준비 상황을 소개하였고, 중국 국가여유국과 하남성 정부를 대표하여 올 6월에 하남성 정주(鄭州)시에서 개최되는 "세계관광도시 시장 포럼" 참석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염봉란 총영사 일행은 전주와 여수시의 관광시설을 둘러 보았고, 여수 엑스포 홍보관도 참관하였다.

4월 2일, 주광주 중국총영사관과 중국 국가여유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0 중국 방문의 해, 상해엑스포와 함께" 리셉션이 전주시 코아호텔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주광주 중국총영사 염봉란, 국가여유국부사장 장서룡, 국가여유국 서울지국장 양강, 중국관광협회 부비서장 장제강, 그리고 한국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경옥, 전라북도 의회의장 고석원, 전주시장 송하진,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택수 등 200여명의 귀빈들이 출석하였다. 중국희극대학과 하남성무술관의 출연자들이 훌륭한 무용, 경극(京劇), 노래, 변검(變瞼) 및 소림무술 등의 공연을 펼쳤고, 주최측은 내빈들을 위해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 중국의 매력

### 동방명주(東方明珠) 타워

동방명주 타워는 중국 상해시 루쟈주이(陸家嘴)로에 위치하며 높이 468m로 아시아 2째, 세계 4째로 높다. 와이탄(外灘)의 "만국건축박람군"과 황푸쟝(黃浦江)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난푸(南浦)·양푸(楊浦) 두 다리와 더불어 "쌍룡희주(雙龍珠)"의 미경을 구성한다. 1994년에 준공되었던 이 타워의 263m와 271m, 350m 되는 곳에 각각 관광층, 회전식당, 댄스홀, 피아노바, 공중객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동방명주타워는 관광, 음식, 쇼핑, 오락, 호텔, 방송 및 TV 신호발사를 일체화 함으로써 상해의 랜드마크와 관광지의 하나로 되어 있다.

# 총영사관공고

저희 총영사관은 지역 시·도민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국과 중국어를 사랑하는 시·도민에게 학습의 장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오는 2010년 4월 30일 14시 30분부터 16시 25분까지 '제4회 총영사관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 주요 내용은 2010 상하이 엑스포와 중국 주요 관광지 소개, 중국 영화 〈연화삼월〉(煙花三月) (언어 · 자막 : 중국어) 등이 있을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4월 9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하신 신청서(성명, 성별, 직업, 주소, 주민등록증번호, 전화 등 내용 기재)를 gzzlg2010@gmail.com로 메일을 이용하여 저희 총영사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이 협소한 관계로 신청하신 순서대로 30분의 신청자에 한하여 회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회신문을 받으신 분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시어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6번지 (우503-230)
중국 비자, 여권, 공인증 문의 : 062) 351-8857
영사 면담, 방문 예약 : 062) 385-8874
영사 보호 담당 : 062) 385-8873
팩 스 번 호 : 062) 385-8880
홈페이지 :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총영사관 소식지 홈사이트
http://gwangju.kr.china-embassy.org/kor/zt/kanwu/